

# 행자교육원 설립 · 교구 활성화 추진



##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신년 인터뷰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지난해 말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중정에 무구 스님이 추대되면서 흐트러졌던 종단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종단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500여 사찰에 408명 스님과 100여 법사들이 활동 중인 본원종은 현재 스님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할 행자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가 어려워 이를 미뤄두었습니다. 중정에 추대된 무구 스님이 무엇보다 이 일을 성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종도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교육과 스님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건립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 지난해 종단운영은 어떠했는지요.

-본원종은 1989년 창종 이래로 화합을 중시하는 종단입니다. 지난 한해 본원종은 종도 모두가 화합된 가운데 종단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중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구 스님을 중정에 추대했으며 총무원 청사 앞 사리탑 건립, 수륙대재 등 각종 활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 올해 주요사업은?

-행자교육 담당기관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간 재정과 감사 확

-안정적 종단운영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매해 음력 3월 삼짱날(4월 11일) 중주담에서 남북평화 통일과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방생 및 수륙고혼천도법회를 치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사업을 못하는 형

적인 사업을 전개해 종단 포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생각입니다.

▲ 신도회 활성화도 시급한데요.

-본원종 총신도회는 신장호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1년 1차례 이상의 신도교육 프로그램은 가동시켜 신도회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신도회장도 종단과 신도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찰 신도회 단위로 다양한 실행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신도 모두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종단 발전에 관심을 갖다보면 신도회의 결속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4대 명절 기념 법회 · 종도연수교육 추진

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종단 환경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추진하다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4대 명절 기념법회, 천도법회, 종도연수교육, 삼중안거 결제 등도 신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종단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편입니다. 올해에는 종단 운영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도마다 교구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비교적 활발히 움직이는 부산교구와 제주 원장 자유 스님을 중심으로 다각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종단 발전염원 총지중 49일 기도

종단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이 2월 19일 서울 총지사 전사에서 49일 기도에 들어갔다. 4월 8일까지 열리는 49일 기도 기간에 총지중 교도들은 종단의 발전과 개인의 해탈, 나라의 번영 및 안위를 서원한다. 사진제공=총지중

### 전승관 건립 방생법회

태고종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건립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선상방생대법회 및 중국 불교순례행사를 개최한다. 선상법회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

는 2만7000명급 여객선 위에 마련된 법석에서 거행되며, 부대행사로 각 사찰별 노래자랑대회와 찬불가 강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국 불교순례행사는 문수도량 오대산 탐방과 석가장, 석장경 친견 법회로 진행된다.(02) 382-7363 김원우 기자

## 스리랑카서 지진해일 희생영가 천도재

### 태고종, 재해발생 100일인 4월 12일 열기로

태고종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지역인 스리랑카에서 재해발생 100일째인 4월 12일경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국가 위문 및 희생자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희생자 천도 영산대재는 대재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국가의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남북불교교구와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태고종은 법회를 앞두고 2900여 사찰을 대상으로 식량, 의약품, 의류, 신발, 학용품 등 구호물품과 성금을 접수하고 있다.

태고종 사회부장 백은 스님은 "대재앙 발생 100일을 전후로 하여 스님과 신도들이 스리랑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영령을 천도하기 때문에 더

없이 수승한 법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382-7361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회당학원 을예산 420억원

학교법인 회당학원 새해 예산이 419억9천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립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유영)은 2월 17일 법인 회의실에서 제 333회 정기 이사회를 갖고 2006년도 법인사무처 및 산하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 대한 올해 예산안을 심의, 지난해보다 20억200만 원이 줄어든 419억9천3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불교문화화부에 무외 정사와 수각 사무, 외식산업학부에 한경필씨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김원우 기자

## “최고의 강백들... 최고의 강의 기대”

### 2기 불교서울전문강당 개강하는 청화 스님

“최고급 교학전문과제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종단의 존경받는 강백 스님들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 7일 서울 법원사에서 열리는 제2기 불교서울전문강당(이하 전문강당) 개강을 앞두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전문강당 운영위원장·사진).

스님은 올해 지관·무비·종범·우룡 스님 등 종단 최고 강백스님을 교수사로 초빙하는 등 강당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단순히 경을 해석하는 수준의 강의가 아니라 2기 교수사 스님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론과



교학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바탕으로 정수를 전해줄 것"이라며 "120명의 2기 수강생들도 교학의 큰 줄기와 흐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화 스님은 “그동안 불교서울전문강당은 기존의 전통강원의 교과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고급 승가대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상이 혼란스러웠다”며 “전문강당을 승가교육체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금의 명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높은 강의 수준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2월 20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신규 포교사 품수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포교사에게 품수하고 있다.

## 조계종 새 포교사 384명 품수식

조계종 제10회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포교부장 일관, 포교국장 선웅,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 등을 비롯한 습의사 스님, 양성종 포교사단장, 연수진행 포교사 30명과 신규포교사 연수생 38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8-2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됐다.

3일간 진행된 신규포교사 연수는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일관 스님) △포교사의 올바른 포교활동(선웅 스님) △종단의 이해(원철 스님) △포교 종책의 이해(포교연구실) △포교사단의 이해(양성종 단장) △전불가와 요가(포교사단) △예배대체법문(습의사) 등의 강의와 철야정진으

로 이뤄졌다. 포교사 품수에 앞서 포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자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20일 열린 품수식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설하라는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처럼 부부나존자의 후예로서 항상 계(戒)를 스스로 삼아 포교사들은 전법의 길 위에 당당히 서라”고 법문했다.

384명의 신규포교사 대표로 나선 정목희 포교사는 “골뎀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구도자로서 부

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교단을 의호하며 이웃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 불법을 흥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 관음종 3월 승려 분한신고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3월 1-31일 승려 분한신고를 접수받는다. 분한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서약서, 수행경력서, 여권용 사진 3매, 법당 내외 전경사진이며, 신고비는 5만원이다. 서약서와 수행경력서 작성하면 된다.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남기면 서약서 등 양식을 받을 수도 있다. 접수는 우편을 통하거나 총무원에 직접 하면 된다. (02) 763-0054 강유신 기자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5년 3월 8일(화)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성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3월 8일 - 12월 13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역 법당	연락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아)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li> <li>•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는 그 위대인상</li> <li>•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li> <li>•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li> </ul>
부산동대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557-2746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747-9997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아)	053)744-3025	오전 11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li> <li>•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는 그 위대인상</li> <li>•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li> <li>•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li> </ul>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간)	042)253-8990	오전 11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li> <li>•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는 그 위대인상</li> <li>•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li> <li>•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li> </ul>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간)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간)	062)511-8990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후 8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li> <li>•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는 그 위대인상</li> <li>•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li> <li>•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li> </ul>
김천 정토불교대학 (아/간)	017-530-4311		
제천 정토불교대학 (아/간)	016-9226-0083		

### 정토불교대학 특전

- ◊ 초심자 입문교육
- ◊ 야외법회 실시 - 사찰순례
- ◊ 특강수련 실시
- ◊ 졸업수련실시
- ◊ 기도정진 및 나누기
- ◊ 수행정점 및 법사님 상담
- ◊ 봉사활동 및 환경·통일·복지특강

### 모집안내

- ◊ 접수기간 : 2005. 3. 15일 까지
- ◊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모든 사람
-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 ◊ 동 참 비 : 12만원(1년제) ◊ 문의 :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 출가·열반절 운영정진이 3월 17일(목)~3월 24일(목)까지 총 8일간 법륜스님의 법문으로 정토회 전국법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위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정토의 정토불교대학 JungTo Society

##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천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머리색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성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